국토교통부	보도 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 12. 4(화) / 총 1매(본문 1매)
담당 부서 감사담당관	담 당 자	• 감사담당관 김종학, 기술서기관 이정복, 주무관 주광돈 • ☎ (044) 201-3102, 3115
보 도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"경찰, 건설 비리 국토부 공무원 등 입건" 보도 관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.

○ 언론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보도된 국토부 공무원(경찰청 보도자료 "C"씨)에 대하여는 이미 대기발령을 조치하였으며, 경찰청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것입니다.

○ 아울러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통보된 국토부 공무원에 대하여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, 과태료 부과(제공업체 포함), 징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.

* 경찰청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위반혐의를 통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하였음

□ 이와 더불어, 향후 교육·감찰활동을 전사적으로 강화하는 한편,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 등 12.4) >

◈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수천만원 금품수수 등
- 전현직 공무원, 신문 발행인 등, - 직권남용・금품수수・입찰담합 혐의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이정복 기술서기관(☎ 044-201-31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